

경찰관 치주 보철 환자의 술후 처치

국립 경찰 병원 치과 김 광 호

경찰관 치주질환의 원인(직업병)

1. Free way space가 없다.

긴장으로 이를 꽉물고 근무하기 때문에 장시간 Clenching에 의한 T.F.O를 유발할 수 있다. 특별한 임상적 치주 질환의 증상 없이도 Bone Resorption을 관찰할 수 있다.

2. 치조골의 Disuse Atrophy

항상 바쁜 업무, 쫓기는 시간속 근무 상황 때문에 식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며 간단한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적절한 교합력에 의한 Alveolar Bone 자극의 부족으로 Bone의 Disuse Atrophy를 초래할 수 있다.

3. Cleansing의 부족

잇솔질을 하기 힘든 시간적 상황과 음식을 잘 씹지 않아 음식물에 의한 Self Cleansing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경찰관 치주 보철 환자의 후처치

1. Free way space부여

Rest 상태에서 혀를 치아와 치아 사이에 살짝 넣고 지내도록 교육을 시킨다. Free way space는 소구치 부위에서 2mm정도로 알고 있으나 근전도 실험에 의한 근긴장도 측정에서는 약 8mm 정도 space가 있는 것이 근 긴장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혀를 치아사이에 넣었을 때가 그 정도의 근긴장도를 보여준다.

2. Disuse Atrophy 방지

음식의 저작 시간을 2, 3 배 오래 씹도록 교육을 시킨다. Fast food나 면종류와 같이 저작하지 않고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의 섭취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3. Rubber Tip 사용

치아면 보다는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며 Waterpick이나 치실의 사용보다는 Rubber tip의 사용을 강조한다.